



# 승례문

2008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0일 밤 우리는 국보 1호 승례문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. 그러나 온 국민이 복구의 염원을 한데 모은 결과, 승례문은 전 소된 지 5년 3개월 만인 2013년 5월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한양도성의 남쪽에 위치해 남대문이라고도 불리며 600여년 동안 곳곳이 한자리를 지켜온 서울의 상징 승례문은 이전에도 한국전쟁 당시 크게 훼손된 뒤 긴급 수리되는 등 오랜 세월 풍파를 겪어왔습니다.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고 복구에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보 1호 승례문의 변화를 사진으로 모아 봤습니다.

2013년

화재 후 5년 만인 2013년 복원된 승례문의 야경 사진 / PENTA PRESS



1895년

1895년에 촬영된 승례문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



1953년

남대문시장 그릇상점 사진 / 임인식



1963년

승례문 옆으로 전차가 다니고 있다. 서울시 제공

2월 10일 방화로 승례문이 불타고 있다. 사진 / 연합뉴스 DB



2008년

전날 화재로 전소돼 기단과 건물 잔해만 남은 승례문 사진 / 연합뉴스 DB

